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 기술지원 평가·전시회

34개중소기업 70여종 신개발품 전시

한국전력공사는 10월 14일 중소기업 기술지원 3년을 돌아보는 평가회를 갖고, 한전 지원으로 새로 개발한 전력용 기자재 전시회를 본관1층 로비에서 개막하였다.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와 이종훈 한전 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추준석 차관보는 우수한 전력용 기자재를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 등 9명에게 통상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종훈 사장은 치사를 통해 “지난 3년동안 946억원을 지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기술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신개발 제품의 판로 확보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한전 중소기업기술지원팀의 송병태 부장이 3년간의 지원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전력연구원 박종현 부장이 협력연구개발부문 우수지원사례를, (주)삼신, 대정기계공업(주), (주)동남물산에서 각각 연구개발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전의 획기적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력사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세계속의 일류 기술공업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34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 성공한 70여종의 전력용 기자재를 전시한 신개발제품 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려 약 3천 600여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에너지관리공단

'96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월 에너지절약의 달 다양한 행사

에너지관리공단은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에너지절약 의식함양과 생활화를 위해 11월 7일 '96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절약 우수사례 발표회, 기술보급세미나, 간담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는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5년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절약의식 함양과 실천을 유도해 경쟁력 10% 높이기 기여한다는 계획 아래 산업·가정·수송부문으로 나뉘어 11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에너지절약촉진대회는 통상산업부 후원 아래 11월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권오기 부총리와 한준호 통상부 자원정책실장, 이종훈 한전사장, 산업체 에너지관계자 1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에너지 절약에 기

회원사 동정

여한 공이 큰 기업, 가정, 홍보, 기술개발 부문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올해 영예의 은탑산업훈장 수상자는 페가스 페열 공정을 공장에 도입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한 (주)LG화학 여천공장 申鉉周 부사장이며, 동탑산업훈장은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설계 및 개발에 힘쓴 (주)대우건설기술연구소의 朴七林 연구소장이, 철탑산업훈장은 건물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이 큰 중앙개발(주)의 文基學 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은 에너지수요관리사업의 기반 구축에 힘쓴 에너지관리공단 沈秀燮 기술이사가 수상하였다.

이밖에 선업포장 수상자 7명을 비롯 대통령 표창 수상자 1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5명, 통상산업부장관상 113명,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표창 14명 등 총164명이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한화에너지(주)

카자흐스탄에 에너지프라자 설립

다기능 복합주유소 처음 도입

국내 정유업체의 계열주유소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한화에너지는 카자흐스탄과의 합작법인인 「한화도스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에너지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연건평 8백 70평 규모의 현대식 다기능 복합주유소를 신축하고 11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이 주유소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기능 주유소로 주유기능 외에 주민생활에 밀접

한 편의점, 가전제품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어 현지인들의 새로운 쇼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화와 카자흐스탄 합작으로 설립된 「한화도스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지 주유소를 매입, 석유제품의 도소매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독자 주유소인 에너지프라자를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화에너지는 이와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유소 민영화사업과 인근의 그루지아등 러시아 지역의 석유투 유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2회 대학생 원자력논문 최종심사

전국 4년제대학 재학생 대상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10월 25일 김창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강희동 경북대 교수, 김승평 조선대 교수, 홍기두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장, 임재호 한국전력 원자력안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학생 원자력 논문 최종심사를 실시하였다.

「21세기를 주도할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원자력논문 현상공모에서는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이공희 군의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문명-원자력」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가작에는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3학년 우영희 군의 「21세기 한국 에너지 정책의 과제와 원자력」외 2편, 그리고 입선

회원사 동정

에 배제대 국제자원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종민 군 등 3명이 당선되었다.

이번에 입상한 학생 전원에게는 국내 원자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특히 우수상, 가작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해외 원자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96년도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작문 모집」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수록한 모음집을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석탄산업전시관 및 산림복구 기공식

폐탄광지역 경제·문화진흥 기반조성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0월 29일 경북 문경시가운읍 왕릉리에 소재한 석공-은성광업소 폐광지에서 문경석탄산업전시관(석탄박물관)과 석공-은성산림복구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기공식에는 김진모 사업단 이사장, 황병태 국회의원, 이재걸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장, 경상북

도지사, 문경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인사와 지역주민, 보도진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제2의 산탄지였으나 국민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로 석탄수요가 크게 줄어 탄광이 모두 폐광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의 피해가 지대한 문경지역의 폐광흔적지를 정비하고, 주변관광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석탄산업전시관 착공을 위한 것이다.

문경석탄산업전시관은 총 60억 9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1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8평의 규모로 건립되며, '97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산업전시관 내부에는 석탄의 기원, 석탄의 생성과 이용, 에너지세계, 갯도여행, 안전장비 관련 영상 및 실물전시, 석탄의 일생과 문경탄전의 생활과 문화 등이 전시되며, 야외전시장에는 갯차등탄광에서 사용했던 대형장비가 전시된다.

또한 세계유일의 실질 갯도체험시설 및 굴진·발파·채탄·운반시설 등 갯내시설도 전시될 예정이다.

석공-은성광업소 산림복구공사는 총25억원의 자금을 들여 훼손된 산림 전체를 복토, 풀씨뿌리기와 잣나무, 자작나무 등 19,813본을 식재하며, 문경석탄산업전시관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전시관 준공에 발맞추어 완공할 계획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폐탄광지역에 선행되어야 할 광해방지 및 환경개선사업과 탄광지역 진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포항종합제철(주)

年産 3백만톤 규모 광양 5고로 착공

세계 1위 철강기업으로 도약

포항종합제철은 10월 15일 광양 5고로를 착공함으로써 68년 창립 이래 30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2천8백만톤 생산체제의 세계 1위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연산 3백만톤 규모의 광양 5고로 착공과 함께 1백80만톤 규모의 광양 1미니밀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광양제철소 5고로가 정상 가동되는 99년 이후 철강생산량이 5천 2백만톤으로 늘어나 미국, 일본, 중국에 이러 세계 4위의 철강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며,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는 국내 철강수급도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착공된 광양 5고로의 특징은 항만, 유틸리티 등 기존의 인프라와 부대설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로 공정의 필수설비인 코크스 및 소결공장을 별도로 건설치 않고 고로 본체만을 건설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포철은 기존 공장의 최대 활용을 통해 철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철원은 브라질 등 해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5고로에서 나온 쇳물은 이번에 준공된 1미니밀, 99년도에 준공될 제2미니밀과 함께 제강, 연주, 열연 등의 기존 하위공정 설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투자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함께 공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철이 이번에 추진하는 고로 미니밀을 연

계한 철강생산 프로세스는 상위공정인 5고로에서 만들어낸 고품질의 용銑(쇳물)을 철원으로해 하위공정인 미니밀에서 최종제품인 열연강판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프로세스로서, 철강업계의 공동과제인 환경문제와 원료수급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원료사용과 제품생산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시황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기존 고로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8년 9월 준공예정인 이번 광양 5고로 건설에는 톤당 1백70달러 수준인 4천96억원만이 투자돼 최저의 투자비로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포철은 5고로 가동시점에 맞추어 99년 2월까지 2백만톤 규모의 제2미니밀을 광양제철소내에 추가로 건설함으로써 상·하위 공정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포철은 이번에 준공된 1미니밀과 향후 제2미니밀을 가동하게 되면 일반강 위주의 수요증가로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국내 수급구조의 왜곡현상도 크게 해소되어 고급강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포철은 지난해 포항제철소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60만톤급의 용융환원제철 설비인 신제선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이번에 광양 5고로 건설과 연계해 슬래브 주조기술의 미니밀을 준공하는 등 세계 최첨단 제철기술을 결집한 「제철소의 하이테크화」를 실현, 생산과 수급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게 돼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형 유화플랜트 中 길림성에 건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과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 유화플랜트건설이 중국吉林省에서 이루어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국이 8차 5개년계획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길림화학의 연산 30만t급 에틸렌플랜트를 지난 92년 턴키베이스로 수주, 당초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지난달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린데社를 기술선으로 해서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련사가 뭉쳐 따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對中수출이 엔지니어링플랜트로 대표되는 기술과 질 위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또 연이어 수주한 길림화학의 연산 10만t급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글리콜(EO&EG)플랜트 역시 공기를 6개월여 앞당겨 준공, 본격 가동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건설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두 개의 에틸렌플랜트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중국측의 신뢰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중국의 대형플랜트 건설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원연구소

3차원 기류해석 기술 개발

폐쇄공간내 환경예측 가능

지하작업장이나 실내 공간 기류의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대형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부 김복윤 박사가 3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폐쇄공간 내에서의 가스농도 확산, 열의 대류 확산, 난류해석 등을 짧은 시간내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하 터널공사 작업장은 대체로 지하심부에 위치하거나, 주요 통기회로에서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디젤장비등이 투입되어 있어 각종 유해가스, 분진 및 발암성인 디젤 입자상물질 등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희석 배제시켜 작업원들을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폐쇄막장 안에서의 복잡한 형태의 기류상태를 현장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실제로 정확한 해석은 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은 기류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모형 실험이나 실물크기 갱도 실험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류의 복잡성 및 실험조건의 다변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실험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복잡한 기류를 간단하게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수치유체역학(Computerized Fluid Dynamics:CFD)을 이용하여

직원사 동정

폐쇄 막장 기류의 3차원 기동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미 1992년에 개발하여 광산갱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통기망해석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에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하 갱도나 건물 공간내의 기류거동을 해석하여 화재나 가스 유출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환경개선은 물론 재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공업(주)

스리랑카 국영제철소 인수

서남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중공업은 스리랑카 국영 제철소를 인수했다. 한국중공업 박雲緒 사장은 지난 10월 31일 스리랑카 콜롬보의 힐튼호텔에서 페레라 스리랑카 재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국영 실론제철소의 주식 90%를 1천 5백만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산 5만 5천t규모의 실론제철소는 철근 와이어 용접봉 등을 생산하며 종업원은 1천 3백50명이다. 이 제철소는 지난해 매출 2백35억원, 경상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중공업은 제철소 인수후 8백만달러를 투자해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증설공사를 통해 생산능력을 연산 7만5천t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경영 기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98년부터 매출액을 현재의 1.4배인 3백30억원으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韓重은 이번 제철소 인수를 통해 현재 건설중인 인도네시아의 나로공 시멘트 공장과 티모로 시멘

트공장, 인도 발전소 등에 철근 철구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철소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8백만달러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인구 12억의 서남아시아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주)

발전설비 공장 준공 본격 생산

2000년 세계 10대 메이커 부상

현대중공업은 경남 울산에 연간 3천MW 규모의 터빈과 4천MW 규모의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공장을 완공, 11월5일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발전설비 시장이 개방되는데다 현대가 이날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국내 발전설비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게 됐다.

현대 울산공장은 4만 3천여평의 부지에 제관공장, 기계가공공장, 발전기공장, 터빈조립공장, 전동기공장 등 5개의 대규모 공장을 갖추고 있다.

현대가 발전설비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지난 94년 5월 착공한 이 공장 건설에는 총 3천 5백억원이 소요됐다.

현대는 이 공장에서 50MW급 산업용 가스터빈부터 1천 3백MW급 대형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용 스팀터빈까지 연간 3천MW의 스팀 및 가스터빈과 4천MW의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5백~1천 3백MW급 화력발전소 5기와 1백MW급 가스터빈 발전소 5기를 턴키베이스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회원사 동정

또 최대 1천 5백MW급까지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고속진공평형시험설비」와 초대형 가공장비인 「플라노 밀러」 등을 갖춰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가 이미 1백85MW급과 4백90MW급 복합화력발전소용 터빈을 제작중이며, 최근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5백1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용 주기의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는 이에앞서 지난 94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50~1백60MW급 가스터빈 발전기의 입찰과 설계 제작 품질보증 등 전분야에 걸친 기술제휴협약을 체결, 발전설비 제작의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발전설비 공장의 본격가동을 계기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 2000년에는 세계 10대 메이커로 부상하고 동시에 제품의 국산화로 연간 10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소

제11회 에너지절약기술 워샵 개최

에너지절약기술 보급 이용확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적용사례를 주제로 제11회 에너지절약 기술 워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샵에는 폐자원 활용기술, 폐열회수 장치 기술, 조업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 산업분야, 건물관리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

기술,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기술 등 건물분야, 수송기기 열효율개선 등 수송분야 전기에너지 수요관리, 고효율 전기기기, 발전 및 송배전 기술 등 전기분야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편 에너지절약 기술 워샵은 통상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산업계, 학계 및 관계 연구기관의 에너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계에서의 경험과 개선사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기술 보급 및 이용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워샵 개최기간에는 에너지절약 기기 전시관을 마련하여 국내 우수 에너지절약 기기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현대정유(주)

유외사업 개발 경영다각화 추진

서비스 차별화 시장경쟁력 제고

현대정유는 석유 유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앞두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주유소의 수익성을 제고시킨다는 전략으로 다양한 유외사업을 개발해 주유소 경영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자사내에 유외사업팀을 신설하고 고객들이 주유할 때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를 개발, 일선 주유소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신사현대 주유소는 2-4층까지를 골프연습장으로, 1층은 주유소와 골프용품전문점, 세차장, 경정비 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1-2층은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은 물론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

회원사 동정

할 수 있는 1백5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주유소 2층 전면은 오일뱅크 이미지 광고판으로 활용해 광고영업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학동로 주유소는 생화/꽃바구니 염가판매 및 CD, 카세트 테잎 염가판매는 물론 사진현상까지 겸하고 있으며 VI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가를 적용, 오일교환을 해주고 있다.

또한 양화교 주유소의 경우는 농협과 농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주유하는 고객들이 전국의 유명 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구의주유소에서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 주유소에도 아이스크림점과 던킨도너츠점을 개설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현대정유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및 각종 보험업무도 처리하고 상담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의사업팀 자체적으로 보험 업무대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의 한국측 대표는 광업진흥공사 趙鍾益사장, 權龍郎 해외자원본부장 등 공사 관련처장과 중국측의 중국유색금속공업총공사 長健 부총경리, 유만녕 계획부 주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중국유색금속공업총공사는 중국 국무원 직속으로 308개의 산하기업체 1백1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중국 비철금속 산업정책 입안 및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96년 10월에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95년 11월에는 제 1차 韓·中 광물자원협력 협의회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제 2차 협의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

'96 韓·中 광물자원협력 협의회 개최

자원협력 증진 및 추진방안 협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10월 2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중간 자원협력증진 및 중국 내몽고 자치주 자올라·사간 프라젠 광산, 호남성 당관포 광산 합작개발 협의 등 구체적 협력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96 韓·中 광물자원협력 협의회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청사 준공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도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3시 대덕단지내에 따로 마련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의지를 다졌다.

회원사 동정

지난 92년부터 181억원을 들여 2만 2,330평의 대지위에 건평 6,770평 규모로 세워진 신청사는 원자력시설 안전규제를 위한 제반시설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국토의 환경방사능을 감시하는 방사선 방재센터를 갖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의 본거지로서의 위용을 갖췄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르는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81년 원자력연구소 내의 원자력안전센터로 발족했으며, 90년에 제정된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분리 독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분리 독립한 후에도 원자력 연구소에서 결방살이를 해왔으나 원연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보유, 피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청사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박사 70명, 석사 117명등 30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원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등 1,000여개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기관과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 원연의 연구용원자로등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

또 전국 16곳의 환경방사능측정소를 통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와 함께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누출이나 주변국의 원전사고·핵실험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각지역의 방사능준위를 실시간 탐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관련 국가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개발(주)

포철 자가 발전소 건설사업 일괄 수주

시설용량 460MW급 복합화력발전소

포스코개발은 광양제철소 조강생산능력 확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제철소내 자가용 발전소 건설사업을 포항제철로부터 일괄수주하여 사업수행 중에 있다.

99년 총 조강생산량 2천 8백만톤 확보를 목표로 건설되는 광양제철소 제 5고로의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소내전력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되는 자가용 발전소는 청정연료인 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용량 460MW급 복합화력발전소로 97년 3월 토건공사를 착공하여 99년 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개발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9일 미국의 Black & Veatch사와 설계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31일에는 발전소 주설비 (Gas TBN 및 Steam TBN)공급사로 General Electric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광양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96년 10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개발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46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핵심 설계기술 및 사업관리 능력을 확보하여 향후 국내 발전 시장은 물론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발전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대림엔지니어링(주)

印尼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설계시공등 전과정 일괄 수행

대림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4억 5천만달러 상당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화전수주는 국내기업으로는 최초인데다 당초 가계약 당시보다 계약금액이 1억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대림엔지니어링은 11월 6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발주한 시불가지역 및 아무랑지역 민자유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4억 5천만달러에 수주, 지난 11월 2일 현지에서 주계약자로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IPP(민자사업사업자)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주한 것으로 대림은 설계는 물론 구매, 시공을 포함하는 전과정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당초 대림은 가계약 당시 토목공사 및 송전선로 공사 주기기구매들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 채 3억 5천만달러에 계약을 했었으나 이번 정식계약단계에서 이들 공사까지 수주, 수주금액이 1억달러 늘어나게 됐다.

공사기간은 33개월로 오는 98년중 완공예정인데 대림엔지니어링은 이 공사수주를 위해 2년여 전부터 IPP사업자인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에 제반 기술을 제공하는 등 유대를 강화해 왔다.

LG-Caltex 정유 (주)

국내 최대 경유탈황시설 완공

日産 7만배럴 규모 증설

LG-Caltex정유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경유의 유황성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유 탈황 시설을 全南 麗川 소재 LG-Caltex정유 麗川 콤플렉스내에 10월 9일 추가로 건설했다. LG-Caltex정유는 이 시설을 통해 유황 함량 0.03% 이하의 초저유황 경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 7만배럴 처리능력의 이번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LG-Caltex정유는 기존의 5만배럴급 탈황시설을 포함 모두 12만배럴을 보유, 국내 정유 5사중 최대규모의 경유 탈황시설을 갖추므로써 초저유황 경유의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용 경유의 유황함량을 현행 0.1%이하에서 오는 98년 4월부터는 0.05% 이하로 규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설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대폭 절감시키는 최첨단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회수된 유황은 직접 액체 유황으로 변환시켜 화학비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LG-Caltex정유는 이번 시설에 모두 1천 7백억원을 투자하여 1년 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하였으며 연간 6백억원 정도의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설재를 즉시 조립이 가능한 모듈라시스템(Modular-System)형태로 도입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약 4개월 정도의 공기를 단축하였다. ➡